

본회의 한번 못 열고... 기약없는 추경

국회 정상화 이전에 파행 장기화... 48일째 표류 당정청, 추경 논의 호소... 한국당, 대야 공세 집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조건 없는 국회 복구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사과·철회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여야는 협상을 접고 국회 파행의 책임 공방만 주고받는 형국이다. 특히 여권이 정상화 협상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인식돼 6월 첫째 주를 넘기면서까지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6월 임시국회도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처법 국회 공천이 장기화하면서 여야의 '정치력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은 10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

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구를 압박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 할 일이 많이 쌓여 있는데 제1야당의 무책임한 반대로 국회 문을 못 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주말에도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재논의하라'는 경직되고 딱 막힌 입장을 반복했다. 국회 정상화의 과도한 걸림돌이 되는 '황교안 가이드라인' 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고통을 겪는 국민과 기업들이 추경을 기다리는데도 외면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고 '한국당 때리기'에 가세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늦어도 7월 중 추경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초 국

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여권은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도 47일째 표류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리가 가장 늦은 사례로 기록됐다. 2017년과 2018년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본회의 통과까지 각각 45일이 걸렸다.

민주당은 추경에 더해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6월 국회 단독 소집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실의'가 없다는 기류도 강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추경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몫이라 국회를 열어도 추경 처리는 못하고 각종 상임위원회가 야당의 대야 공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며 대야 공세를 강화했다.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을 고리로 청와대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한국당은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이 정권의 좌파경제 폭정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세계 경제 탓, 야당 탓, 추경 탓 그만하고 경제정책 대전환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실패, 포퓰리즘 정책 실패, 반기업 정책 실패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인정하거나 반성하거나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대의연전 탓, 야당 탓, 추경 탓을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상화 협상의 중재자를 자처한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회 정상화 협상이 마지막에 진출을 보이지 못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힘겨루기 반복되는 상황이 심히 유감"이라며 "양당의 태도를 보면 6월 국회 파행도 불사할 기세인데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과 만나 약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만난 양정철

텔레이 오찬... 민주연구원-경남발전연구원 협약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과 만나 회담을 했다.

이날 경남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만난 양 원장과 김 지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포용하고 약속하며 인사했다.

김 지사는 "도지사 취임 이후 가장 많은 취재진이 왔다"며 "경남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정당마다 싱크탱크가 있는데 5개 당 싱크탱크끼리도 초당적으로 국가발전, 나라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 있으면 서로 협력해 협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정부 싱크탱크 뿐만 아니라 정당 간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정책으로 선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첫발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10분 가까이 만남 모습을 공개한 뒤 15분가량 비공개 회담을 이어갔다. 양 원장은 회담을 마친 뒤 경남발전연구원과의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앞서 양 원장은 김 지사와 만나기 1시간 전 도청에 도착해 일부 취재진에게 "(김 지사를 보면) 편안하고 아프다. 국회 의원으로만 있었으면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 싶다. 도지사 되고 차기 주자가 되면서..."라며 "그런 일(드루킹 사건)은 선거판에서 일어났을 수 있다. 착한이끼 바쁜 와중에 그런 친구를 응대하니깐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원과 협약을 통한 각 지역과의 공동정책 개발 내용이 충실할 것으로도 이어질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큰일 난다"며 선을 그었다.

여야 6·10 항쟁 한 목소리 추모

여야는 6·10 민주항쟁 32주년을 맞아 10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영령을 한 목소리로 추모하면서도 민주화 정신 계승 방향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32주년을 맞은 오늘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민주항쟁 희생자들을 기리며 숭고한 희생에 깊은 존경과 애도를 표한다"라며 "민주당은 민주주의 완성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민주라는 가치가 법치를 흔들고, 자유에 따른 책임을 망각하며, 심지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에게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쪽' 사개특위



10일 국회에서 제12차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한국당·바른미래 불참 속 회의...검경 수사권 조정 등 논의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처음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 속 10일 '반쪽짜리'로 개최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환홍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현 의원만이 참석했다. 나머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사전에 합의된 의사 일정이나 이유는 불참했다.

윤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

당은 오늘 회의 개최를 반대했다"며 "앞서 위원장과 간사에게도 회의를 열기에 앞서 원내지도부 간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먼저라고 말한 바 있다"고 항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사개특위를 구성할 때 특위 의사 일정은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다수의 힘에 의해 이런 합의정신이 일방적으로 무시됐다"고 비판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대해 이상민 위원장은 "6월에는 국회를 반드시 열도록 돼있는데다 특위 시한이 6월말로 끝나 매일, 24시간 특위를 '풀

가동' 해도 부족하다"며 "한국당이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국회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이날 경찰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 중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씩 총 4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바른미래당 소속 채이배-임재훈 의원이 사임하고 권은희-이태규 의원을 보임했다. 민주당에서는 송기현 의원이 사임, 권철승 의원이 보임됐다.

정가라운지

이개호 "청년들 농촌서 꿈 찾을 수 있어야"

농림부 장관 호남대 특강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광주 호남대학교 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가진 '4차 산업혁명과 미래농업·농촌'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장관은 강연을 통해 "이제 농업 농촌은 새로운 삶터, 일터, 쉼터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만큼, 취업과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이 틈새시장을 찾는 과감한 도전의식을 갖고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농업 생산기술의 발전과 식품소비의 변화로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과 농촌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 있다"며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농업 농촌에서 희망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과 함께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SOC 기능이 복합된 거점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개호 장관은 10일 호남대학교 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가진 '4차 산업혁명과 미래농업·농촌'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화순 남면 유마리 유마사 마을 1021㎡ 전망 좋음 5천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음 1130㎡ 1억2천

투자·매도·교환

- 함평군 해보면 용천사 입구 땅 1537㎡ 식당 82㎡ 2억5천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대지 641㎡ 주택 있으나 주택사추적합 1억5백
- 광산구 분덕동 그린벨트 자연녹지 1465㎡차량진입가 1억6천
- 광산구 쌍암동 대형빌딩 중의 2층 25㎡ 과일즙 전문점 시설합 1억5천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나주시 영산포역 부근 상업지 1025㎡ 위치좋은 6억3천
- 북구 두암동 4차선 950㎡ 병·의원 등 적합 18억7천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순천시 낙안민속마을 땅 2180㎡ 팬션3동 317㎡ 교환가능 8억
- 함평군 해보면 문장 땅 919㎡ 건평 1207㎡ 원룸 30. 지하공실 17억
- 농성동 새 원룸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가게는 공실 17억
- 중장로 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3647㎡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33억
- 영광 읍면 바닷가 땅 3663㎡ 팬션2동·식당 700㎡ 은행 3억 매도 6억5천
- 무안군 운남면 바다인접 약 9400㎡ 전원주택·요양시설 적합 3억3천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2346㎡ 팬션·노인시설 등 적합 4억7천
- 남평읍 드들강 모델 땅 2741㎡ 건평 1748㎡ 요양시설 적합 17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신안군 임대면에서 7분거리 독립섬 56233㎡ 독립생활적합 3억6천
- 목포 옥암동 여관 대지 439㎡ 건평 989㎡ 객실 27 은행 4억 매도 6천만원
- 담양군 무정면 땅 3850㎡ 별장 147㎡ 조정안벽 팬션좋은 7억2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임야 단독섬

- ▶ 바로합니다
- ▶ 지분물건 환영
- ▶ 단, 맹지는 매입 불가

문의. 010-6834-7400

전원주택 매매

신속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810㎡, 건평: 83㎡, 매매가: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810㎡, 건평: 83㎡, 매매가: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660㎡, 건평: 83㎡, 매매가: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